



2018년 8월 12일(제888호) 연중 제19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네 눈에 기러진 기름막들(신입견들)을 걷어버리고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지.”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합니다. 의욕은 많이 앞서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동에 관해 소극적인 형태의 모습을 띠곤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기 신부님들과 같이 스크린 야구장에 갔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타석에 들어설 때면 아주 중요한 득점 기회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 신부님들의 기대도 컸지만, 신부님들은 저를 알기에 기대 반, 포기 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치 이번 타석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 몇 타석에서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경기 중반부터는 잘 맞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도 잘 살리고, 홈런까지 치게 되었습니다(누군가 기계 조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그리고 다음 날 저를 잘 아는 다른 친구신부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그런 축하와 격려가 아닌, 거짓말하지 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신부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 말이지요. 또 어느 날은 축구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두 골씩이나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랑했더니 또 거짓말을 한다며 무시 아닌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두고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라며,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믿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구절이 오늘 복음의 포인트는 아닐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철수 집안의 자식이고 어렸을 적 코흘리개였고.... 기타 등등이라며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내 눈에 기름막을 쳐놓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는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런 것은 아닐까 묵상해봅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것들이 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운동을 잘 못 하지만 그래도 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에게 이런 태도로 다가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 주님에게 얻는 위로는 아마 영원히 갖지 못할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을까요?



박원재(프란치스코) 신부
강철(육군 50사단) 상무 주임

제 1 특 시

1열왕 19,4-8

회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특 시

에페 4,30-5,2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요한 6,41-51

영 성 제 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김시건 인드레이



성인명: 김시건 인드레이 (金思健 Andrew)

신분: 중인, 순교자

활동연도: 1794-1839년

충청도 서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사건(金思健) 안드레아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웠다. 본디 김 안드레아의 집안은 부유하였으나, 부모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부터 재산을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이주해 다닌 탓에 가난하게 되었다. 그의 가족이 피신해 다닌 곳은 전라도 고산, 경상도 진보, 강원도 울진 등지였다. 그러다가 김 안드레아는 1815년의 을해박해 때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말았다. 이후 그는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여기면서 가끔 당시의 일을 후회하곤 하였다.

아버지가 유배를 간 뒤 김 안드레아는 경상도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기도와 전교, 성경 읽기에 많은 시간을 바치면서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또 신자 가정을 찾아 교회 서적과 성물을 전해 주거나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죽을 고비에 있는 비신자 자녀들에게는 대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김 안드레아는 다시 순교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1827년에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김 안드레아는 체포될 것으로 짐작하고 천주의 섭리를 잘 따르고자 많은 기도를 드렸다. 실제로 얼마 안 있어 포졸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고, 그는 이내 상주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교우들을 밀고하라.’는 관장의 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천주교의 주요 교리와 십계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화가 나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는 다리뼈가 허영게 드러났지만,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기쁜 마음으로 이를 참아 내었다. 며칠 뒤 김 안드레아는 경상도의 수부인 대구로 압송되어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는 전주로 이송되어 포졸들이 교우들에게서 빼앗은 성물에 대해 답변을 한 다음, 다시 대구로 끌려오게 되었다.

대구 옥에는 형벌을 이겨 낸 많은 교우가 김 안드레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과 함께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다시 한번 배교 여부를 묻는 문초가 있었는데, 이때 임금에게 올린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사건은 천주를 공경하여 받들었고, ‘그 묘미를 깊이 깨달아 비록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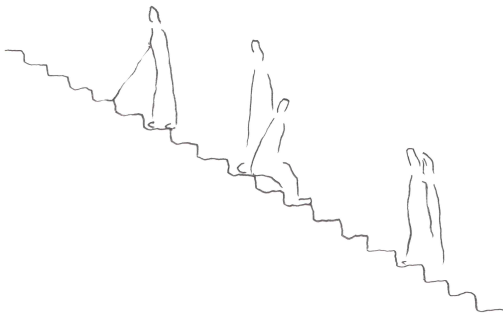
1839년 5월 26일(음력 4월 14일), 김 안드레아는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포졸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한 뒤 예를 다하여 장사를 지내 주었으며, 신자들은 오랫동안 그를 특별히 공경하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하루를 행복하게

- 함께든
- 혼자든
- 우리는
- 오늘 하루를
- 행복하게
- 살아야 합니다.
- 포기하지 말고.



상화이야기

성모자

본 그림은 예술사적으로 많은 호기심의 대상이 된 그림으로, 일견 아무런 특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화가가 흥미로운 설정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모자> 1480년경 제작
 키를로 크리블리(테이닌안도 미상-1495)
 나무 위 템페라
 37.8x25.4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 그림의 전면에는 로마 시대부터 기원한 작은 배란다 난간 같은 곳에 방석이 놓여 있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앉아서 계시며 성모님이 예수님을 잡고 계신다. 성모님은 언제나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며, 아기 예수님은 작은 새(장박새, 참새과의 한 종류)를 양손에 잡고 계신다. 성모님 위로는 오이와 같은 채소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성모자의 뒤편으로 보이는 배경에는 얇은 숲이 그려져 있고 터번을 두른(이교도라는 뜻) 인물들이 몇몇 있으며, 난간에는 화가의 서명이 붙은 종잇조각이 왁스로 붙어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 왼편의 난간 위쪽에 작은 파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 파리가 배경 속 인물들의 실제 크기와 비교하면 다소 큰 편이라는 것이고, 차라리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파리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어떤 학자는 파리와 장박새가 악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다니엘 아라스라는 프랑스의 미학자는 미술관에 파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파리를 쫓으러 그림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일화를 전한다.

다니엘 아라스는 이러한 장치(파리를 그려놓는 것)가 그림의 위상을 격하시키기보다는 화가가 관객에게 던지는 일종의 물음이라고 설명한다. 비단 파리뿐 아니라 화가의 서명과 오른쪽에 금이 간 난간 또한, 성모자가 계시는 신성한 공간인 이 그림 속 공간과 우리의 세속적 공간과의 경계를 허물어 이 그림에 영속성과 현존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파리를 통해 이 그림은 영원히 동시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모님과 아기예수는 이 그림이 그려진 15세기부터 지금 이 주보를 보고 있는 우리가 사는 2018년까지 우리 삶과 관찰의 영역에 깊이 관계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9주일 : 용성대 정현수 신부

◆ 교구장 동정

- 소성(17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8월 12일(주일)
- 제4회 한국청년대회
 교구장과 함께 하는 교리교육과 미사
 때·곳: 8월 13일(월) 09:40, 한강 성당

- 국장회의
 때·곳: 8월 1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제4회 한국청년대회 폐막미사
 때·곳: 8월 15일(수) 10:00, 서울시청 앞 광장
- 원목자 기초교육과정 파견미사
 때·곳: 8월 18일(토) 11:30, 서울성모병원

“군 복음회, 반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